

■ 온 정 을 나 누 주 세 요

따뜻한 국밥 한그릇을 먹고 싶은 영수 씨

“틀니가 자주 빠져서 작년부터 밥을 씹어 먹지 못하고 있어요.” 66세인 영수(가명) 씨의 소박한 바람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중국집을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에 먹을 걱정 없이 지냈던 영수 씨였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난으로 무너지면서 영수 씨는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학벌도, 돈도, 기술도 없었지만 묵묵히 일용직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소중한 딸을 얻으며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생활은 오래 이어졌고, 결국 아내는 어린 딸을 두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탓에 아내를 찾을 방법도 없어 영수 씨는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자 생계를 위해 원양어선에 올라 10년 동안 바다 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

지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고된 노동과 외로움 속에서 지쳐가던 그는 점점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이 두려워지고, 불 꺼진 방 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설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왼쪽 손이 마비되며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점 장사를 시도했지만, 단속으로 인해 이어가지 못했고, 또다시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이어가며 조금씩 삶의 의지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어려움 속에 치아가 망가져 6년 전 위아래 부분틀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금니가 닳아 틀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살이 빠지고, 틀니가 헐거워져 침이 흘러나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습니다. 미숫가루로 허기를 달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씹어 먹는 것이 소원인 영수씨지만 삶의 희망을 다시 붙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수씨가 틀니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다시 따뜻한 밥 한술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 성금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에 게재된 치아치료가 간절한 상철씨 사연에 공무직노조 5만원, 강○선 5만원, 김○정 5만원, 김○희 1만원, 윤○주 5만원, 정○훈 30만원, 노

○동 3만원, 박○영 3만원, 박○희 15만원, 상○5만원, 안○우 2만원, 안○영 2만원, 안○희 10만원, 박○기 20만원, 김○철 3만원, 김○렬 3만원, 남○흔 10만원, 정○범 5만원, 김○양 2만원, 나눔재단 10만원,故 이희석성금 20만원 등 총 164만원 기부해주셨습니다.

위 후원금은 상철씨에게 전달하여 치료비 등에 소중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 후원금은 세액공제 가능하니 기부금처리를 원하는 운영님은 꼭 연락주세요.
♥ 기부금처리 및 문의 : 남구청 복지정책과(☎607-4862)
♥ 후원계좌 안내 : 부산은행 315-01-000297-0(예금주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입금자명 뒤에 '온정'을 꼭 붙여주세요!!(예시-홍길동온정)

복지시설 소식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은 초록우산 자원사업 ‘이음家’ 가족캠프를 밀양피자 마을펜션에서 진행했다. 발달장애·비장애 자녀가 있는 5가정이 참여해 가족관계 강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627-8521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문현1동 지역가게들과 함께하는 ‘놀봄터’를 운영한다. ‘놀봄터’는 물 나눔, 책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647-3655

문현노인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원사업에 선진돼 ‘문스기자단’과 ‘문현동네 문화전파단’ 평가회를 열었다. 8개월간 남구 문화·전통 전파활동을 펼친 어르신 50명이 참여해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조사 결과는 2026년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936-9988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11~12월 ‘2025 용복만복 겨울나기’를 통해 홀로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장애인·조손가족 등 1,000세대에 김장김치와 방한·난방용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겨울을 돕는 후원 참여를 추진한다. ☎628-6737

남구장애인복지관은 연말 지역장애인 2,000세대 김장김치 나눔 행사 재원 마련을 위해 용호동 늘빛교회와 ‘늘빛바자회’를 진행했다. 지역 기관의 후원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복지관은 따뜻한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626-6990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남구청과 17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하는 민간협력 연합모금사업 ‘미리메리크리스마스 시즌 11’을 마무리했다. 모금된 성금은 내년부터 에너지 소외 사각지대에 지원된다. ☎634-3415

남구를 밝히는 사랑의 빛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수태)는 지난 11월 10일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남구에는 총 627세대에 9,400만 원이 배분됐다. 전달식에서는 지원 취지와 사업 내용이 공유됐으며, 모금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대별 필요에 맞춘 난방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가족 선물 전달

남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7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선물꾸러미와 구급함을 제작해 총 125세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물꾸러미는 일교차가 큰 계절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불로 구성됐으며, 구급함에는 가정에서 간단한 응급처치 시 활용할 수 있는 체온계, 밴드, 소독용품 등 14종의 기본 의약·방역 물품이 포함됐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대연중앙교회 기부

대연1동 대연중앙교회(담임목사 강정웅)는 지난 11월 18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70포(1,700천 원 상당)와 라면 50박스(1,100천 원 상당)를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대

연중앙교회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기관으로, 2016년 연탄 500장, 2019년 김장김치 50kg, 2023년 쌀 70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성금 870만 원 등을 기부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왔다. 올해 연말에도 쌀과 라면을 기탁하며 변함없는 지역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강정웅 담임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기탁된 물품은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됐다.

장상호 위원장 이웃사랑 성금



대연3동 주민자치위원장 장상호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부산 남구에 기탁했다. 장상호 위원장은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2024년부터 남구 나눔리더로 참여해 왔고, 이번 기부를 포함한 누적 성금은 700만 원에 달한다.

옥천암 이웃나눔 실천



문현2동 소재 옥천암(주지 대각)은 지난 11월 1일 옥천암 경내에서 ‘제12차 황령산 산신제 및 지역주민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옥천암 신도들은 정성껏 마련한 라면 300박스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옥천암은 매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산신제와 경로잔치를 연계한 기부 문화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주지 대각 스님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라면 기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라새 재활요양병원 성금 기탁



새라새재활요양병원(병원장 최슬기)은 지난 11월 11일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감만2동에 기탁했다. 새라새재활요양병원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치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개원했으며, 2016년부터 10년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왔다. 최슬기 병원장은 “고령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트뮤직 온정 나눔



아트뮤직(대표 김광록)은 지난 19일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에 겨울 신발, 양말, 가방 등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아트뮤직 김광록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께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후원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부된 물품은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용당동 용당본동발천협의회(회장 이희숙), 자율방범대(대장 오승용)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제3회 아싸! 우리동네 노래자랑’ 행사를 실시했다.



감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도윤)는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복지서비스도 안내받는 ‘찾아가는 골목길 복지박람회’를 실시했다.



감만2동 청년회(회장 정정일)는 지난 11월 16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우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권중섭)는 지난 11월 4일 경산시 서부2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문현1동 바르게살기운동 문현1동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지난 11월 1일 겨울맞이 동네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문현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김복순)는 지난 11월 15일 어르신 400여명을 모시고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문현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한미숙)는 지난 11월 13일 홀로어르신 등 취약계층 98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문현4동 새마을지도자문현4동협의회(회장 임종채)는 중·고등학교 학생 3명에게 총 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